

200자 안내

先進國의 教育制度

李圭煥 지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소련, 스웨덴 등의 교육제도를 비교교육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서. 서론적인 제1부에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을 밝힌 다음, 이어 나라별로 교육 개혁의 史的 배경, 교육행정, 학교제도, 교원양성, 성인교육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 아직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 1980년 초판 발행 이후 10년만에 나온 증보판.

배영사 / A5신 / 552면 / 7000원

종교철학자가 본 불교

黃弼昊 지음

「철학적 인간, 종교적 인간」의 저자이자 일련의 수필집들로도 잘 알려진 종교철학자의 불교時評을 한데 모은 책. 「불교의 제자리찾기 운동」 「민중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잡지는 언제쯤 제힘으로 커 나갈 수 있을까」 등 불교계의 쟁점을 진단한 글들을 비롯해 본격적인 '불교논문'들도 함께 수록했다. 권말의 「불교학 전공교수님께 드리는 글」이 특히 흥미를 끈다.

민족사 / A5신 / 238면 / 3000원

야생의 고독

미셸 푸르니에 지음 / 조윤희 옮김

다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프랑스작가 푸르니에가 인류학적 상상력으로 패러디한 소설 「프라이데이 또는 야생의 삶」의 완역본. 데포의 작품에서 크루소의 노예로 나타나는 프라이데이에게 새로운 조명을 가함으로써 그가 교화되어야 할 야만인이 아니라 서구와는 다른 문화를 지닌 인물이란 점을 부각, 인간과 문명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문학출판사 / A5신 / 194면 / 2500원

매스미디어와 社會

최정호 · 강현두 · 오택섭 지음

매스미디어 이해의 '기초문법서'라 할 만한

입문서. 미디어의 이론 · 기능 · 효과, 미디어의 역사, 미디어체계와 사회체계, 매스미디어의 이해,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 매스미디어와 정보사회, 매스미디어 연구방법론 등 매스미디어 전반을 광범하게 다루고 있어 매스미디어 관련 학과생 및 대학 교양과정의 교재로서 유용하다.

나남 / A5신 / 444면 / 8500원

거시국토통일론

안천 지음

정치학적 시각에서 한국고대의 북방영토 문제를 연구한 논문 9편을 묶은 책. 우리의 강역을 한반도지역에만 국한하는 종래의 '현실적 영토관'에 대해 만주 및 동시베리아지역까지 우리의 강역 안에 포괄시키는 '잠재적 영토관'을 주장하는 저자(서울교대 교수)의 독특한 견해가 흥미를 끈다. 부제 '만주는 우리땅이다.'

인간사랑 / A5신 / 442면 / 5000원

90년대를 노려라

오노 가즈히로 지음 / 이윤희 편역

90년대 경제에 새바람을 일으킬 신종 유행업종 및 상품 10여가지를 소개한 책. 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경제의 흐름, 비즈니스, 경영방법, 서비스사례, 전망 등을 구체적인 예를 동원하여 보여주는데, 가령 '고령층시장' '베이비마켓'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 '新부유층' 분석으로도 유명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착상'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글사랑 / A5신 / 250면 / 3500원

비즈니스英文選

趙元基 지음

미국의 신문 · 잡지 등에 게재된 비즈니스英文기사 96편을 국제경제, 국내산업 · 경제, 금융 · 은행 · 증권 · 보험, 경리 · 세무 · 감사 · 컴퓨터, 정치 · 사회 · 문화의 6부로 나누어 묶은 책. 비즈니스英文 해독능력의 향상과 함께 미국이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엮여졌다. 각장의 말미에 게재지와 게재 연 · 월 · 일을 밝히고 간단한 주해를 덧붙였다.

修學社 / A5신 / 226면 / 4000원

지상 최후의 날

게리 G. 코헨 지음 / 여병익 옮김

성경의 종말론적 예언을 소재로 하여 그같은 예언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를 상상적인 이야기로 제시한 '가상소설'. 인류는 과연 성서의 예언대로 필연적인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들에 대해 가상의 이야기 전개를 통해 답하고 있는데, 각장의 앞머리에 성경의 예언들을 발췌하여 수록한

점이 특징적이다.

시온출판사 / A5신 / 258면 / 3000원

모험으로의 출발

라인홀트 메스너 지음 / 김성진 옮김

히말라야의 8천미터급 14개봉을 모두 등정한 최초의 산악인으로 금세기 최고의 알피니스트로 꼽히는 메스너의 산악에세이. 고향 빌네스게곡에서 시작된 모험을 향해 떠나는 순수한 등반의 동기에서부터 세계의 고봉을 오르게 되는 젊은날의 경험들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단순한 등반기를 뛰어넘는, 산과 등산에 대한 문학적 묘사와 철학적 성찰들이 돋보인다.

수문출판사 / B6 / 318면 / 4500원

한국의 붕괴

小室直樹 지음 / 金永國 옮김

「소비에트제국의 붕괴」 「대국 일본의 부활」 등으로 잘 알려진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끼의 한국경제 진단서. 얼핏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경제의 딜레마와 치부들을 날날이 해부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실상을 직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한국경제가 일본에 의해 '사육'되고 있다는 저자의 지적은 흥미롭다.

산업교육센터 / A5신 / 286면 / 3600원

中國倫理學史

蔡元培 지음 / 김용섭 · 장운수 옮김

先秦시대 제자백가에서 宋明시대의 理學에 이르기까지 중국윤리학의 통사를 개괄한 입문서. 중국전통사상의 일관된 맥락 속에서 각 학파 및 학자들의 윤리사상을 논하고 있는데, 특히 개별학자들의 사상체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물윤리학사'로도 읽힌다. 저자는 중화민국 초대 교육청장을 지낸 바 있는 저명한 철학자.

새문사 / A5신 / 182면 / 4500원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

우슬라 쇼이 지음 / 손덕수 옮김

남녀의 性差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길들여짐으로써 발생한다는 사실을 교육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밝힌 책. 남녀의 성차별적 역할분담, 마르크스주의의 개성이론과 발달이론, 남녀차별적 성격형성론, 유아기-놀이-에 대한 관심과 부모의 기대, 성역할의 고정형과 동일성 등 모두 8부로 구성돼 있다.

정우사 / A5신 / 188면 / 2500원

당신도 침묵으로 다시 태어나

존 헤이더 지음 / 장순용 외 옮김

미국의 명상프로그램 지도자 존 헤이더가 老子의 「道德經」을 구체적이고 실용적 관점에

서 새롭게 구성한 책. 노자가 말하는 道를 한 그룹을 리드하는 원리로 응용, 그 원리를 실천하는 리더십을 강조했다.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도덕경」의 원리를 현실적인 효용성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어 흥미로운데,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손질'을 가했다.

명상 / A5신 / 186면 / 3000원

깨어있는 者만이 숲을 볼 수 있다

鄭木日 지음

1975년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남강 부근의 겨울나무」 「별이 되어 풀꽃이 되어」 「모래알 이야기」 등을 펴낸 바 있는 작가의 신작에세이집. 「신비후호」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무지개는 어디 뜨는가」 「세계문화기행」 등 4부로 나누어 모두 60여편의 에세이를 한데 묶었다. "내 수필들은 '인생'이란 물음에 대한 어리석고 열은 느낌들"이란 것이 작가의 말.

문학세계사 / A5신 / 266면 / 3500원

신제품개발을 위한 전략적 사고법

김훈철 · 장영렬 지음

신제품개발이 현대의 마케팅과 광고를 성공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히트상품' 개발의 전략을 제시한 책. 신제품개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기업의 생명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저자들은, 기업내부의 힘의 집약, 소비자정보의 초점화, 개개인의 노력의 총화, 그리고 의식혁명이 결합될 때 비로소 히트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김영사 / A5신 / 192면 / 4000원

민족예술의 이해

조홍윤 외 지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문화예술을 본다는 시각 아래 씌어진 민족예술론 모음. 조홍윤의 「巫와 민족예술」을 비롯, 「새로운 '싸움굿」을 위하여」 「진양장단의 '박」에 관한 고찰」 「인간을 위한 음악」 「구로동연가의 노동자관」 「우리춤이 나아가야 할 길」 「민족미술운동의 성과와 문제점」 등 모두 10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민족문화사 / A5신 / 220면 / 3000원

에세이 술 (2)

강범우 외 지음

술을 주제로 한 문인들의 테마에세이 모음. 술 에찬론과 비판론, 그리고 술의 역사에서부터 술에 얽힌 에피소드까지가 폭넓게 수록돼 있으며, 酒仙으로 유명한 李白의 '酒詩'들도 함께 실었다. 황혼녘이면 어김없이 나는 술생각에 대해 얘기하는 강범우의 「오후 다섯시

病」을 비롯, 권일송·양승본·유재용·이상우·정목일·조돈만·하유상 등의 '술에세이' 30여편이 실려있다.

보성출판사 / A5신 / 318면 / 3500원

색인 및 초록 작성법

클리블랜드 지음 / 김두홍 외 옮김

문헌정보의 양적 팽창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색인 및 초록 작성의 이론과 실체를 소개한 안내서. 정보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색인작성과 초록작성의 제방법을 통한 정보처리, 직업으로서의 색인 및 초록작업을 다루는 한편,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법에도 따르이 한 장을 할애했다. 용어해설과 참고도서목록을 말미에 붙였다.

구미무역출판부 / A5신 / 278면 / 6000원

사회주의교육의 이론과 실천

S.캐슬 지음 / 이진석 옮김

사회주의 교육의 제반원리와 역사적 발전과정,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사회의 교육에 주는 교훈 등을 폭넓게 다룬 사회주의교육론 입문서. 러시아, 중국, 동독에서의 사회주의교육이론의 적용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특히 흥미를 끌며, 스탈린 집권 이후 변질되기 시작한 소련에서의 사회주의교육을 소개한 부분도 주목을 끈다.

푸른나무 / A5신 / 260면 / 3500원

생활속의 물리학 (2)

베렐만 지음 / 황근수 편역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갖가지 물리적 현상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엮은 책. 얼음위를 네발로 걸어가면 왜 안전할까, 물속에서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 소금쟁이는 어떻게 하여 물위를 걸어다닐 수 있는가 등 친근한 생활속의 물리학적 의문들을 풍부한 그림과 함께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다. 원저는 1913년 소련에서 출간됐다.

이성과학실 / A5신 / 224면 / 3300원

학습지

문헌정보학보 (제4집)

[논문] ▲대학도서관운동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 (김정근) ▲아동용 도서관가구 규격에 관한 인간공학적 연구 (손정표) ▲영국도서관협력체제와 중앙집중형 협력모형 (현규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입안지침에 관한 연구 (류인식) ▲助記性 보조표에 대한 소고 (정해성) ▲우리나라 대학도서관협의회에 관한 고찰 (김석영) ▲興德寺字로 찍은 「자비도장참법집해」의 복각본에 관한 고찰 (남권희) ▲의학도서관 관계문헌 연구 (강은슬) ▲천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모형에 관한 일연

구(이승채) ▲도서관에서의 근거리 네트워크 활용 (안현수) ▲연속간행물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김영석) ▲한국목록규칙에서의 版次사항 변천고 (이명규)

문헌정보학회 / A5신 / 494면 / 비매품

외교 (제13집)

[특집]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국의 안보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국안보의 당면과제 (김국진)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국의 안보 (박경서) ▲한·미 군사관계의 장래 (차영구) [논문] ▲최근 국제질서 변화의 성격과 한반도 (하용출) ▲물타회담과 미·소관계 (배궁찬) ▲세계정세변화와 한반도 (박홍규) ▲한국안보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위협요인 (김재범) ▲비밀외교의 이점과 합법성 (김명기) ▲세계 환경전략의 현황과 전망 (최석영) [남기고 싶은 이야기] ▲수단 방문기 (김승영) ▲외교관계 수립의 뒷이야기 (윤영교) ▲제신의 고향을 찾아서 (이시호)

[자료] 한국전쟁과 미국의 개입 (소진철) 한국의교회회 / B5 / 158면 / 비매품

무크

한살림 (창간호)

[좌담] ▲문명의 위기에서 생명의 질서로 (이명현·최혜성·김지하·김상중) ▲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 (박재일·이순로·김영원)

[한살림 공부모임] ▲侍에 관하여 (장일순) ▲생태론으로 본 환경문제 (김상중) ▲생명의 농업, 왜 필요하고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 (김영원)

[특집] 세계의 녹색운동 ▲세계의 녹색화 (마츠 프리버그·베른 헛트네) ▲독일녹색당 정강정책 ▲일본녹색연합 정책안내 ▲소련의 녹색운동 ▲세계각국의 녹색운동단체 강령 비교표

[생활과 환경-물] ▲물과 인간 (김정옥) ▲물 오염의 과학적 이해 (장재연) ▲수질관리와 그 대책 (장원) ▲수질오염 반대 주민운동 사례 (서지근) ▲수질오염 관련 용어해설 (황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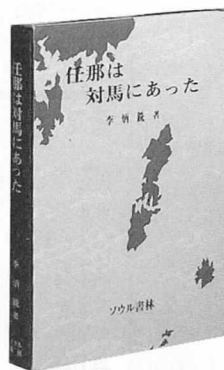
한살림 / A5신 / 328면 / 3500원



이색출판

任那는 對馬에 있었다

李炳銑 지음



地名의 어원적 연구와 사료분석, 그리고 對馬島 현지의 실증적 답사를 통해 일본의 '任那南韓說'을 비판하고, 임나가 대마도에

있었음을 밝혀 화제를 끈 「任那國과 對馬島」(1987) 일본어판이 간행됐다.

이 책은 특히 임나를 비롯, 신라·백제·고려 등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倭의 '조공국'이 한반도의 3국이 아니라 대마도의 村落國名이었음을 주장, 「일본서기」의 임나기사가 倭와 대마도의 촌락국들과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일본서기 연구에 일대 전기를 준 책"이라는 일본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인들 스스로가 읽고 그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 일역본을 내게 됐다는 저자(부산대 교수)는 이 책이 "고대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서울書林 / A5신 / 468면 / 5800원

화제의 책

學校圖書館 組織과 運營

金世翊 지음



'학교교육의 심장'으로까지 일컬어지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제반문제를 실무적 차원에서 친절하게 소개한 「학교도서관 조직과

운영」이 발간돼 사서교사를 비롯한 도서관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의의와 기능을 비롯해 설치 및 시설, 人事, 구비자료, 도서관이용과 봉사, 독서지도, 비도서자료 등 도서관운영 전반을 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특히, 외국에서의 학교도서관 운영실태에도 따르이 한 장을 할애했다. 우리와 좋은 비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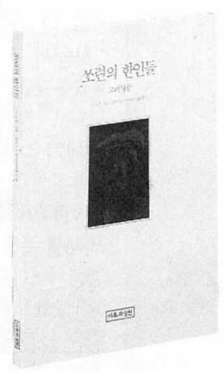
그밖에 책과 도서관에 대한 교육자료를 덧붙여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에 좋은 지침이 되도록 했으며, 권말에 붙인 부록 「학교도서관 관계기사색인」 및 「참고서목」은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저자(이화여대 교수)의 40년 교직경험이 반영돼 있어 도서관현장의 실무지침서로 유용하다.

이대출판부 / A5신 / 238면 / 4500원

화제의 책

소련의 한인들

고송무 지음



모스크바, 타슈켄트, 알마아타 등 주로 중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在蘇韓人들의 생활상을 밝힌 연구서. 소련과학원 동방학연

구소의 초청으로 1989년 소련에 체류했던 저자(핀란드 헬싱키대 교수)가 직접 중앙아시아지역을 둘러본 경험과 자료들을 토대로 재소한인의 과거와 현재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와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정착과정을 비롯해 재소한인의 생활상 전체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모두 7부로 구성돼 있는데, 벵골사 현황에서부터 재소한인의 명예회복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분야에 걸쳐 재소한인들의 생활상을 조목조목 밝혀주고 있다.

참고문헌목록과 함께 120여점의 풍부한 사진자료를 권말에 실어 흥미를 끈다.

이론과실천 / B5 / 286면 / 7500원